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75호 【루게 제 24488호】 주제 103 (2014)년 3월 16일 (일요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12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보도사는 김정은평등자에서 새로 개건하고있는 중앙동물원을 돌아보시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평등자에서는 새로 건설 및 개건하고있는 여러 대상들을 돌아보시었다.

그이께서는 건축물들을 동물들의 생태학적특성에 맞게 시공하며 참관자들의 편리를 최대한 도모해줄수 있게 건설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었다.

또한 수족관을 비롯한 개건중에 있는 모든 대상들을 인민들에게 웃음과 화열을 안겨주는 즐거운 휴식장소로 꾸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로자들에게 동식물에 대한 지식과 상식을 줄수 있는 종합적인 자연박물관도 건설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평등자에서는 중앙동물원과 해당 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동물원을 조선로동당에서 제시한 기일에 훌륭히 개건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중국의 인터넷홈페이지들인 참고소식망, 중국망,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 일본의 교도통신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중국보도사는 또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군사학교 교직원들의 사격경기를 지도하신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평등자에서는 사격경기를 시작할때 대한 지시를 주시고 경기를 주의깊게 보시었다.

그이께서는 지휘관들이 총을 잘 쏘아 군인들을 명사수로 준비시킬수 있다고, 그러자면 그들을 양성하는 군사교육기관의 높은 교직원들부터 높은 사격술을 소유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오늘 진행된 사격경기는 훈련을 첫자리에 놓고 제도화, 생활화하여야 군인들을 그 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목표들을 단방에 어김없이 소멸하는 백발백중의 명사수로 준비시킬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주었다.

군력강화에서 기본은 훈련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와 전투력을 백발백중으로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일본의 교도통신도 우와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 사설

# 유기농법을 적극 장려하자

유기농법을 비롯한 선진농업방법과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은 우리 당이 제시한 중요한 농업정책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유기농법을 적극 장려하여야 합니다.》**

유기농법은 화학비료와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지어 농산물의 질을 높이고 땅을 높이며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농업이다. 유기농법의 우월성은 이미 우리의 농업생산선진국을 통하여 뚜렷이 입증되었다. 나라의 쌀들을 채우고 인민들의 식량문제를,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름길은 유기농법을 장려하는 데 있다. 유기농법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평등업적을 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더없이 보람찬 사업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찍이 거름더미는 곧 쌀더미라고 하시면서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귀중한 땅을 보호하고 기름지게 경구어다가도록 손잡아 이끌어 주시었다. 질 좋은 거름을 정보당 20이상 내도록 하며 작업반과 농가에서 기를 집집마다 수까지 정해주시는 분도, 흙에 치는 보약이라는 의미에서 흙보양분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시며 농촌들에서 지력을 높이기 위한 분뇨를 장려하시면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수많은 농촌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유기농법을 비롯한 선진농업방법과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다. 농산과 축산은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세우고 도처에 축산기화장소와 유기질분뇨비료공장, 복합비료공장을 일떠세우도록 하시며 유기농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열풍을 일으켜주시기 위한 장군님의 불멸의 평등업적은 오늘날도 우리 인민의 가슴에 뜨겁게 울려주어 있다. 농업부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로고와 심혈이

기든 유기농법을 틀어쥐고 내밀어 농업생산에서 커다란 손이 나오도록 함으로써 대원수님들의 평등업적을 끝없이 빛내어나가야 한다.

현시기 유기농법을 적극 장려하는 것은 우리 나라 농업발전의 요건이며 세계적인 농업발전의 추세이다. 화학비료와 화학농약을 농사에 리용하면 땅이 산성화되고 농작물의 생육과 소출에는 물론 사람의 건강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 이런 조건에서 각종 유기질비료와 생물농약, 천연 광물질을 리용하여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지력을 높여면서 농업생산량을 늘이고 자력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나라는 것은 우리 농업부문에 나서는 중대,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름길은 유기농법을 장려하는 데 있다.

유기농법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평등업적을 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더없이 보람찬 사업이다. 현실은 유기농법을 우리 식으로 더욱 발전시키는것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유년군 운하하는 중요성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승교된 뜻을 높이 받들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유기농법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국농민, 흙에 치는 보약이라는 의미에서 흙보양분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시며 농촌들에서 지력을 높이기 위한 분뇨를 장려하시면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수많은 농촌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유기농법을 비롯한 선진농업방법과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다. 농산과 축산은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세우고 도처에 축산기화장소와 유기질분뇨비료공장, 복합비료공장을 일떠세우도록 하시며 유기농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열풍을 일으켜주시기 위한 장군님의 불멸의 평등업적은 오늘날도 우리 인민의 가슴에 뜨겁게 울려주어 있다. 농업부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로고와 심혈이

이 내면 농사를 잘 지을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모든 농촌들에서는 거름생산에 힘을 넣어 질 좋은 거름을 논밭 정보당 20~30이상 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두엄과 진겨물, 도시오물, 풀거름, 개비닥흙을 비롯한 거름원천을 남김없이 찾아 리용하여야 한다.

효과성이 높은 흙보양분비료와 유기질 복합비료, 미생물비료, 후민산염, 이미노산미생물소분합비료를 비롯한 유기질비료생산에 힘을 넣어 정보당 시비량을 높여야 한다. 최근년간 강인도의 농장들에서 알곡생산량을 늘인 사실은 질 좋은 이탄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논밭에 내린 알곡수확고를 보다 높일수 있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하면 축산물생산량을 늘이고 질 좋은 거름을 생산하여 알곡을 높일수 있다. 유년군 운하하는 중요성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승교된 뜻을 높이 받들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유기농법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국농민, 흙에 치는 보약이라는 의미에서 흙보양분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시며 농촌들에서 지력을 높이기 위한 분뇨를 장려하시면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수많은 농촌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유기농법을 비롯한 선진농업방법과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다. 농산과 축산은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세우고 도처에 축산기화장소와 유기질분뇨비료공장, 복합비료공장을 일떠세우도록 하시며 유기농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열풍을 일으켜주시기 위한 장군님의 불멸의 평등업적은 오늘날도 우리 인민의 가슴에 뜨겁게 울려주어 있다. 농업부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로고와 심혈이

꼭두벌농사방법, 루비작물재배를 비롯한 좋은 재배방법과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유기농업도입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야 한다.

모든 문제해결의 열쇠는 일군들의 손에 쥐어져있다. 당에서는 우리 일군들이 리 투쟁의 앞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군들은 유기농업도입이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당정책을 관철하는 중요한 정치작업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높은 목표밑에 앞장에서서 팔짱을 붙 때까지 뛰어야 한다. 대중의 정진력을 발동시키고 유기농업도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틀어쥐고 내밀어 어디서나 유기농업도입바람이 세차게 일게 하여야 한다.

초급일군들이 유기농업도입에서 기수가 되어야 한다. 분조장, 작업반장들이 유기농업도입에서 맡고있는 몫은 크다. 분조장, 작업반장들은 모든 포건을 기를지배를 위한 과학기술대책을 세우고 대중의 앞장에서 한강하게 실천해나가야 한다. 특히 분조장들은 분조농사의 운명이 자기 어깨에 지워져있다는 자각을 가지고 선진농업방법과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포전담당책임제를 설정함에 맞게 적용하여 농업근로자들의 열의를 높여줌으로써 모든 논밭에 유기농업이 도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당조직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속에 유기농업도입은 우리 당이 내세운 중요한 정책적문제라는것을 깊이 인식시켜주어 그들모두가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여야 한다. 농업부분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유기농업을 적극 장려함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결사관철 하여 사회주의농촌재배로 50이상이 되는 뜻깊은 열매를 농업생산에서 맺어내야 한다.

## 4. 15경축준비위원회 로씨야에서 결성

4. 15경축준비위원회가 로씨야 까렐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 빅토르 예그로브와 부위원장 웨.에스. 포스노프가 각각 선출되었다.

로씨야 까렐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 빅토르 예그로브와 부위원장 웨.에스. 포스노프가 각각 선출되었다.

18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성중하는 강연회, 업적도록 등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불멸의 꽃 김정일 화에

### 몽골국제화초전시회 최고상인 1등상 수여

위인칭송의 꽃 김정일 화에 몽골 국제화초전시회 최고상인 1등상이 수여되었다.

6일부터 7일까지 몽골의 울란바타르에서 진행된 이번 전시회는 우리 나라와 중국, 몽골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진귀한 화초들이 출품되었다.

300여종의 붉고붉은 꽃들로 황홀경을 이룬 조선전시장은 김정일 화가 세계적으로 화초박람회, 전시회 등에서 받은 상장, 메달들을 소개하는 사진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김정일 화의 아름다움과 진귀함, 황홀경 감화를 금치 못하였다.

몽골의 한 정부인사는 화초에 호가로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많은 꽃들을 보았다. 하지만 김정일 화와 같이 아름다운 꽃은 처음 본다. 절세위인의 존함을 뽐내는 김정일 화와 더불어 몽골과 조선사이의 친선관계가 더욱 두터워질것이라는것을 확신한다고 자기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몽골 쓰올즈총회사 총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 화로 하여 전시회장이 더욱 화려하고 이채롭게 장식되었다.

몽골의 강주위를 이겨내고 홀출출한 꽃이 활짝 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을 보면서 김정일 화에 대한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흠모심을 더 잘 알게 되었다.

전시회장을 찾은 몽골사람들 모두가 세계의 명화인 김정일 화가 더욱 만발하기를 바라였다.

【조선중앙통신】

# 우리에게는 미국의 강도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추호도 통하지 않는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에 대한 각계의 반향

### 천만군민의 의지를 담은 원칙적립장

미국의 날강도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대한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을 천명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성명을 우리 리국의 전체 일군들은 전적으로 지지한다.

조선반도에서 계속되고있는 전쟁 반세기 이상 지속되고있는 조선반도의 분열과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동북아시아지역의 불안정성을 근원적으로 끝장낼수 있는 가장 공평정대하고 타당한 해결책을 명백히 밝힌것으로 하여 이번 국방위원회성명은 우리 천만군민뿐 아니라 아시아와 나아가서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리해를 모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최근에 와서 보다 악랄해지고있는것은 미국이 세계지배를 위한 전략적중심을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돌리고 우**

리를 1차적인 공격목표로 삼은것과도 관련된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날로 격화되고있는 군사적강화와 전쟁위협은 전적으로 미국의 반합없는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직결되어있다.

해당 나라의 국가정책은 마땅히 끊임없이 변천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의 구시대적관계에서 자주와 민족을 대립시키는 한 나라와 민족을 통틀어 집어삼키려는 가장 포악한 정책적용법은 다국화, 자주화를 지향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더이상 통할수 없으며 자멸만을 앞당길뿐이다.

미국의 정책작성자들이 오늘의 세계를 아직도 인디언들의 피마두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던 수백년전으로 여기며 제2차 세계대전시처럼 자기 땅우에 있는 영토를 차지하며 경제 강국건설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성

의와 노력을 다하고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불기름을 영원히 가시기 위하여서는 우리 공화국 국방위원회의 성명이 천명되도록 미국이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전면철회하고 조선반도를 내면하여 한다. 오늘날의 기회를 외면한다면 미국은 마땅히 세계평화에 역행하는 죄인으로서 역사의 괴수에 앞게 될것이며 그것은 중당에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파멸로 이어질것이다.

반세기 이상 민족분열의 쓰러진 고통을 겪고있는 전체 조선 민족이 지적하고있다. 자주와 평화를 사랑하고 지향하는 세계 인민들이 미국의 차후선택을 지지하고있다.

미국은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핵무는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결별해야 한다.

기계공업성 김강 직속 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에 대한 각계의 반향

## 조선은 똑바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이제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그것은 엄청난 핵재난을 가져오게 될것이며 미국도 결코 모자하지 못할것입니다.》**

지금 대학의 전체 교직원, 학생들은 저마다 우리모두의 마음을 그대로 담았다고 하면서 당보에 실린 성명내용을 자기구구 보고 또 보며 국방위원회의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대대로 하나의 강토에서 한 피를 먹고 살아온 우리 민족을 홀로 갈라놓고 치명적인 야수적만행과 분열의 쓰러짐이 품을 갠이로 미제의 괴행은 천추만대를 두고도 씻을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하늘땅에 사무친 원한을 안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를 자아내며 또다시 망발을 제쳐내며 돌아가는 미제

의 시대착오적인 망동은 우리 천만군민의 보복의지를 더욱 백배해주고있다.

조선의 아름다운 메일을 설계가는 학생들의 가슴속에 크나큰 리상과 포부를 안겨주는 신성한 우리 교육자들의 이름으로 미국을 준벌히 규탄한다.

뚜렷이 참을수 없는것은 대 통령까지 핵탄은 부위높이 인간의 체모도 갖추지 못하고 료리도덕도 모르는 몇몇 《탐욕자》쓰레기들을 《영웅》이라고 휘두며 우리 제도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고 부실하게 늘어놓는 것이다.

은 나라가 회복한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사는 위대하고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똑바로 알지도 못하고있는 미제의 치졸하고 가련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낳은 미국의 극적이 아닐수 없다.

인 사고에서 벗어나 강대한 이조선, 백두산대국이 과연 어떤 나라인가를 똑바로 들여다볼것을 권고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평등업에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국가를 건설해가고있는 우리 조선은 미제가 그 아무리 온갖 제재와 고립봉쇄, 군사적위협을 가해도 눈심 한오리 까딱하지 않는 강철의 보루이며 영원성새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얻을것은 젊음으로 더욱더 약동하는 선군의 힘, 조선의 힘이다.

미국은 파멸적후과에 직면하기 전에 이제라도 제정신을 차려야 하며 무지몽매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버리고 대세에 부합되는 정책적결단을 내려야 한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강좌장 박지민

## 미국은 옳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야수적인 함포사격과 폭격으로 하여 제미니만 남았든 페르우에 우리의 힘과 기술로 볼라듯이 공장을 다시 일떠세우고 비로록

포가 쏟아지지만 우리 흥남의 로동계급이다.

몇해전 우리의 원로에 의한 주재비료 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흥남에 가스화공정건설이 한창 벌어지고있을 때 미국은 여러가지 명목의 제재로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아 나갔다. 그러나 우리의 로동계급은 어리석은 제재들을 매달리는 미제의 상통을 후려치는 심정으로 완강한 투쟁을 벌려 자체의 힘과 기술로 설비를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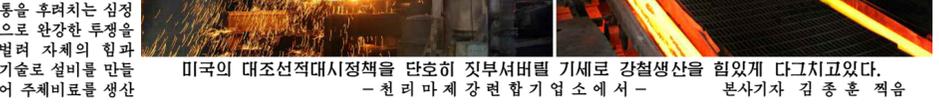
하였다.

사람들의 심장을 지배하는것은 그 어떤 《제재》와 《압살》의 무기가 아니라 위대한 사상이며

력사의 흐름을 결정하는것은 돈이 아니라 인민대중이라는 진리를 미국이 정복적대시정책을 한시바빠 깨닫는것이 좋을것이다.

지금이라도 조미대결이 아니라 조미관계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옳바른 선택이 될것이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직장장 한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단호히 거부하며 기술품 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다. -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 본사기자 김홍준 찍음







실화

조국에 드리운 인사

총련 금강산극단 무용배우

“저기 선거장이 보여요!  
 뻘안에서 누군가가 터치는  
 란성애 모두의 눈길에 차창밖으로  
 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 13기 대의  
 원선거를 위한 제 18호 보통강  
 선지구 제 7호 분구선거장의 정  
 경이 점점 가까워 다가들수록  
 화선은 좀처럼 마음을 진정할수  
 가 없었다.

“(어머니, 보십니까. 이역에서  
 나사자란이 딸이 조국의 선거  
 장으로 들어옵니다.)  
 화선의 눈앞으로 지나온 나날  
 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 \* \*

“어떻게 할까 피어나 사람  
 들에게 기쁨을 주는 참된 조선  
 녀성이 되어야 한다.”  
 일본방에서 태어난 화선은 어  
 림 때부터 부모들에게서 늘 이  
 런 말을 들으며 자랐다. 소문시  
 절에 애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에 대해 무어든 그런 말을 해주  
 는 것인지 꺼림을 알 수 없었다.

“(난 그저 충으로 성공하면 그  
 만인걸루.)  
 화선의 가슴속에 꽂혀있는것  
 은 오직 이 야심뿐이었다.

갈취하면서 헤매잡한 얼  
 굴, 낯선 몸매, 늘 사람들앞에  
 서 나비처럼 나날거기 잘하는  
 화선이 보고 마을사람들은 무  
 용을 잘하라고 소문난 어머니를  
 꼭 닮았다고 현를 차곤 했다.

화선은 텔레비전화면에서 비  
 치지는 춤가락을 눈여겨보곤 했  
 다. 예사인지 어느 하나도 마음  
 에 들지 않았다.

“그렇다면 무슨 춤을 배울까?  
 어느날 화선은 가족사친들을  
 펼쳐보다가 춤을 추는 어머니의

리화선의 생활에서

한각 무용수로 명성떨치고있  
 었던 리화선의 화선의 꿈과 회  
 망은 이렇게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 어머니조국에 대한 보  
 답의 정으로 뜨겁게 달아오르  
 기 시작하였다.

공화국창건 65돐을 맞으며  
 총련과 제일동포들은 무용의  
 귀중한 찬스이었고 하시며  
 하찮은 믿음과 사랑이 어린  
 축하문을 보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화선에게는 태양처럼 따사로  
 운 그 품이 자기, 제일동포모  
 두가 안겨주는 조국의 품으로  
 안겨왔다. 사랑을 더해, 정을 다  
 해 키워준 고마운 어머니조국  
 쪽 인사를 드리고싶었다.

가슴에 차넘치는 감사의 그  
 정을 다스나마 티질수 있는 기  
 회가 비로소 주어져 103(2014)  
 년 3월 9일 조국방문의 나날  
 을 보내는 화선에게 온것이  
 었다.

\* \* \*

드디어 화선의 차례가 되었다.  
 치마치고리들 단정히 차려입  
 은 화선은 경건한 마음으로 선  
 기표를 받아들었다.

선기표에 새겨진 공화국국장  
 류달리 눈부리를 파고들었다.  
 마치도 그것은 해외에서 사  
 은 동포들을 변함없이 사회주의  
 가정의 찬스이었고, 혈육으로 사  
 랑해주시는 어머니조국의 사  
 랑은 눈빛처럼 안겨왔다.

화선은 뿔이오르는 격정을 금  
 지 못하며 찬성의 향포를 바치  
 었다. 그것은 영원히 안겨줄 고  
 마운 삶의 품-어머니조국에 공  
 화국의 한평생 해외공민이 되  
 는 감사의 인사이기도 하였다.

본사기자 박옥경

모습이 짙은 사진을 보게 되었다.  
 유아한 춤가락이 금시 흘러나  
 오를만 같은 사진속의 어머니를  
 화선은 보고 또 보았다. 그리고  
 는 못했다. 어머니가 그때 춤  
 이 무슨 무용인가고.

“그게 바로 조선사람의 춤,  
 조선무용이란대.”  
 조용히, 그러면서 깊은 뜻을  
 담아 하는 어머니의 말을 화선  
 은 몇번이고 곱씹어 외었다.  
 말끝마다 너는 조선사람이  
 다. 일본방에서 살아도 조선사  
 랑의 자존심과 긍지를 안고 살  
 아야 한다고 하면서 조선학  
 교에서 공부하라고 이르던 부  
 모들의 모습이 새삼스럽게 떠  
 올랐다.

그후 화선은 조선학교들에 무  
 용소속자 있다는것, 누구나 회  
 망하면 조선무용을 배울수 있고  
 조국에 가서 무료로 무용공부도  
 할수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학교에 입학한 화선은 신바람  
 이었다. 조선무용의 춤가락이  
 몸에 배일수록, 우리 말과 글을  
 익혀갈수록 화선에게는 자  
 가니는 조선학교가 또 하나의  
 정은 집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 정은 집을 보살피려는 더 큰  
 어머니품이 있다는것을 화선은  
 다는 알 수가 없었다.

위대한 영도자 김일동지  
 계를 잊어서는 안되며 우리  
 장군이 이끌고 계신 조국에  
 대한 충성을 다하여 나라를  
 위하여 싸울수 있는 민족의  
 넋을 지켜가는 제일동포들의  
 소명을 지녀야 하고 조국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하여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  
 주신 위대한 수령님, 수령님의  
 그 사랑은 오늘도 어머니장  
 군님께서 안겨주시고 어머니  
 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  
 (아, 고마운 어머니장군님  
 나의 춤을 보여드리고 감사의  
 큰절을 드리고싶구나.)

제14차 평양시봄철어린이바둑경기 진행

얼마전에 제 14차 평양시봄철  
 어린이바둑경기가 진행되었다.  
 평양시 어린이바둑경기는  
 2001년부터 봄철과 가을철  
 에 걸쳐 매해 두차례씩 진행  
 되고있다.

위대한 영도자 김일동지  
 계를 잊어서는 안되며 우리  
 장군이 이끌고 계신 조국에  
 대한 충성을 다하여 나라를  
 위하여 싸울수 있는 민족의  
 넋을 지켜가는 제일동포들의  
 소명을 지녀야 하고 조국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하여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  
 주신 위대한 수령님, 수령님의  
 그 사랑은 오늘도 어머니장  
 군님께서 안겨주시고 어머니  
 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  
 (아, 고마운 어머니장군님  
 나의 춤을 보여드리고 감사의  
 큰절을 드리고싶구나.)

스승이 받은 축하의 꽃다발

부강시그림들을 훌륭히 창작한  
 리지아, 김수련학생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느라 큰  
 영광을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  
 하고있다.

이날 제작자들이 펼쳐놓은 스승  
 에 대한 추억은 참으로 아름다  
 였다.

리유미동무가 제작자에게  
 자주 들려주던 이역에서 조국  
 의 귀중함을 사무치게 절감하  
 던 나날들에 대한 추억과 조국  
 품에 안긴 후 어느날 미술  
 작품전시회에 출품하였던 그의  
 작품들을 찾아낸 리유미동무가  
 어버이수령님께서 재능의 씨를  
 찾아주시던 뜻을 이야기하시  
 렀다.

교단에 선 때부터 학생들에  
 게 애국의 넋을 키워주고 품  
 버린 리유미동무가 모범이 되  
 시키어준 선생님이,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를 버리고 오늘의  
 영광을 누리는 데 앞장섰던 스  
 스에 대하여 외국출장을 갔다가  
 돌아올 때에도 트렁크속에 교  
 육사업에 필요한 도서들을 가  
 뒀다.

이제 리유미동무는 집으로  
 찾아올 제작자들 축하의  
 꽃다발을 받았다.

20여년전에 대학을 졸업하  
 고 피복부문 일군으로 사  
 임한 리유미동무가, 3.8국제부  
 녀절을 맞을 스승을 찾아낸 리  
 유미동무가, 어버이수령님께서  
 재능의 씨를 찾아주시던 뜻을  
 이야기하시 렀다.

교단에 선 때부터 학생들에  
 게 애국의 넋을 키워주고 품  
 버린 리유미동무가 모범이 되  
 시키어준 선생님이,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를 버리고 오늘의  
 영광을 누리는 데 앞장섰던 스  
 스에 대하여 외국출장을 갔다가  
 돌아올 때에도 트렁크속에 교  
 육사업에 필요한 도서들을 가  
 뒀다.

문학예총출판사에서

혁명전설총서 《출발이 정해  
 준 성지》(금수산태양궁전전  
 선)에는 어머니수령님께서 혁  
 명과 건설을 영도하시며 우리  
 민족속에서 태어나 널리 전  
 해지고있는 5편의 혁명전설이  
 편집되어있다.

출판사에서는 또한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장군체조와 예술  
 공연 《아리랑》창조를 몸소  
 하시기도 세 세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결자로 빛을 뿌리  
 드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  
 는 용을 담은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아리랑》  
 도 출판하였다.

소설에는 지난날 눈물의 아  
 리랑을 부르던 우리 인민이 오  
 늘 행복의 아리랑, 강성부흥  
 의 아리랑을 부르며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해가는 궁지없는  
 인민으로 피겨 하여주시는 위  
 대장군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감명있게 형상되어있다.

이번에 출판된 도서들가운데  
 는 함일혁명전사들의 투쟁과  
 나가는 생애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의 영광을 위하여 수없이  
 많은 수행이 있었으며 수행의  
 길은 길투가 되어 그들을 사  
 비의 비결이 있다는것, 수령은  
 만민을 사랑하는 철의 진리로  
 힘 있게 확명한 장편소설 《향  
 도》

조 함 III

대중체육활동을 정상적으로

로산군 북포협동농장의 일  
 군들과 농장원들이 대중체육  
 활동을 정상적으로 벌어나  
 갔다.

이곳 일군들은 농장원들에게  
 대중체육사업의 중요성과 의  
 의를 설명하고는 한층 높이는 데  
 중의 열의에 맞게 체육활동을  
 활발히 벌어나가기 위한 계획  
 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이 사업  
 을 적극 추진하고있다.

농장에서는 누구나 대중체육  
 활동에 적극 참가할수 있는 조  
 건을 잘 보장하는데 깊은 관심  
 을 기울이고있다.

농장에서는 명절과 휴식일마  
 다 축구, 배구, 농구, 집단달  
 리기 등 여러 종류의 체육경기  
 를 활발히 벌어나가며 일러  
 마다 흥겹게 하고있다.

일군들이 대중체육활동의 앞  
 장에 서고있다.

얼마전에 진행된 농장일군들  
 의 축구와 배구경기는 농장원  
 들의 체육열의를 북돋아주  
 었다.

대중체육이든 그대로 농사  
 일과 농장원들이 당면한 농사  
 에서 높은 실적을 이룩하게  
 하고있다.

이처럼 활발히 벌어지는 대  
 중체육활동으로 하여 농장에  
 는 언제나 혁명적정만과 전  
 투적기  
 로동동원 서 종 남

봄철의 잔디밭비배관리(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도시와 농촌의 주민지구  
 와 철길주변, 공원원에는 잔  
 디를 비롯한 지교식물을 많이  
 심어 생명이 보이기 위하여  
 하여야 합니다.》

봄철의 잔디밭비배관리에서 중  
 요한것의 하나는 물주기와 결  
 합하여 비료주기를 잘하는것  
 이다. 비료는 잔디밭에 물주  
 기하면서 물을 뿌르며 하는 작  
 용이 비교적 큰 노소비를 줄  
 이고, 노소비는 잔디밭에 대  
 한 시비효과가 비교적 큰 비  
 료로서 새로운 크고 하고 잔  
 디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측면  
 에서 효과가 뚜렷하다.

비료에는 비료세정도 주며  
 필요한 경우에는 더 줄수 있다.  
 비료주는 량은 1㎡당 노소비  
 료인 경우 50정도, 복합비료  
 인 경우 100정도이다. 복합비  
 료인 경우에는 한변정도 주는  
 것이 좋다.

비료는 비료세정도 주며  
 필요한 경우에는 더 줄수 있다.  
 비료주는 량은 1㎡당 노소비  
 료인 경우 50정도, 복합비료  
 인 경우 100정도이다. 복합비  
 료인 경우에는 한변정도 주는  
 것이 좋다.

봄철의 잔디밭비배관리(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도시와 농촌의 주민지구  
 와 철길주변, 공원원에는 잔  
 디를 비롯한 지교식물을 많이  
 심어 생명이 보이기 위하여  
 하여야 합니다.》

봄철의 잔디밭비배관리에서 중  
 요한것의 하나는 물주기와 결  
 합하여 비료주기를 잘하는것  
 이다. 비료는 잔디밭에 물주  
 기하면서 물을 뿌르며 하는 작  
 용이 비교적 큰 노소비를 줄  
 이고, 노소비는 잔디밭에 대  
 한 시비효과가 비교적 큰 비  
 료로서 새로운 크고 하고 잔  
 디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측면  
 에서 효과가 뚜렷하다.

비료에는 비료세정도 주며  
 필요한 경우에는 더 줄수 있다.  
 비료주는 량은 1㎡당 노소비  
 료인 경우 50정도, 복합비료  
 인 경우 100정도이다. 복합비  
 료인 경우에는 한변정도 주는  
 것이 좋다.



우리 나라의 국조-참매

조선의 국조인 참매는 우리  
 나라에서 번식하고 겨울도 나는  
 사철새이다.  
 세계적으로 참매는 우리 나라  
 를 비롯하여 중국, 러시아, 중  
 남미아메리카 등에 분포되어  
 있다. 참매는 주로 풀썩, 낱알  
 등 식물성먹이와 동물성먹이를  
 먹는다. 성질이 온순하고 기  
 르기가 쉽다.  
 참매는 주로 풀썩, 낱알  
 등 식물성먹이와 동물성먹이를  
 먹는다. 성질이 온순하고 기  
 르기가 쉽다.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의 동물원에서  
 번식하는 참매는 아름다운  
 수염과 아름다운 색깔을 지  
 니고 있다. 참매는 주로 풀썩,  
 낱알 등 식물성먹이와 동물  
 성먹이를 먹는다. 참매는 온  
 순하고 기르기가 쉽다.

참매는 주로 풀썩, 낱알  
 등 식물성먹이와 동물성먹이를  
 먹는다. 참매는 온순하고 기  
 르기가 쉽다.



자기가 사는 마을을 더 잘 꾸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중구역 동통동에서- 본사기자 김철우 씌음

농작물병해충구제에 효과적인 식물활성단백질

자료에 의하면 최근 여러 나  
 라들에서는 농작물의 병해충  
 구제에 효과적인 식물활성단백  
 질을 새로운 연구개발하여 널리  
 도입하고있다.

그러나 화학농약은 잔류독성  
 을 나타내고 환경오염을 일으키  
 며 오래동안 사용하면 해충과  
 병원균에 약제내성이 생기는  
 결함이 있다.

이로부터 여러 나라의 과학자  
 들은 오래전부터 식물체에 잠  
 들어있는 해충과 병원균에 대  
 한 방어체계를 자극하여 병충  
 해를 유다하는 활성체를 개발하  
 기 위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  
 하여왔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